

EU, 개정 TEN-T 규정 기반 지속가능 도시 모빌리티 계획 의무화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추진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집행위원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- EU는 개정 범유럽 교통 네트워크(TEN-T) 규정에 따라 431개 도시를 도시 노드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 도시 모빌리티 계획(SUMP)과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도시 교통의 계획·평가 체계를 강화
 - 2024년 7월 발효된 개정 TEN-T 규정은 도시 노드를 지속가능 복합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고, 회원국과 도시에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 교통 관리체계를 고도화
 - 규정 부속서에는 431개 도시 노드와 SUMP 수립 요건, TEN-T 연계 기준을 명시하여 도시 교통정책의 추진체계를 표준화
 - 유럽 집행위원회는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도시 노드의 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정책 이행을 지속 관리
 - 회원국은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능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SUMP 수립을 통해 도시와 광역권을 연계한 통합 교통계획을 추진
 - 계획은 도시와 통근권을 포함한 기능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광역 교통 연계와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
 - 회원국은 2025년 7월까지 국가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도시의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UMP의 안정적인 이행과 확산을 지원
- EU는 지속가능성·안전·접근성 중심의 공통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회원국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여 도시 모빌리티 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
 - 유럽 집행위원회는 7개 분야 공통지표와 데이터 제출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교통정책의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
 - 온실가스 배출, 대기오염, 소음, 혼잡, 수단분담률, 교통사고·부상, 모빌리티 서비스 접근성 등 7개 분야 지표를 적용
 - 2024년 도시 모빌리티 전문가그룹과 TEN-T 위원회는 이행법 마련과 공통 성과지표 개발을 지원하며 회원국의 정책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
 - 공통지표는 회원국과 도시의 정책 추진성과를 비교·평가하고 지속가능 교통정책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활용
 - 무공해·저소음 교통 확대, 대중교통·보행·자전거 활성화, 저탄소 도시물류, 도농 간 접근성 개선 등 4대 우선과제의 성과를 평가
 - 회원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통 기준에 따른 데이터를 제출하고, EU는 이를 활용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



※ 출처 : 유럽 집행위원회(2026.07.09),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ning and monitoring